

# 저출산과 관련된 TV드라마 속 가족현상

## Content Analysis of Family Phenomena Shown on TV Dramas Related to Low Birthrate

경희대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전공  
조교수 유계숙  
석사과정 장보현  
석사과정 한지숙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 He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Yoo, Gyesook*  
*Master Course: Jang, Bohyun*  
*Master Course: Han, Jisook*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드라마의 질적 내용분석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nation's birthrate has been rapidly fal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related to low birthrate, by analyzing TV dramas dealing with childbirth and rearing. Content analysis is well suited to research probing widespread cultural notions or behavior. If any part or all of the dramas discussed an aspect of childbirth and rearing, we recorded verbatim quotes and paraphrased some specific points. Using the technique of multiple observers, inter rater as well as intra rater reliabilities were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emergent themes in TV dramas on low birthrate are social environment, family context, and value changes.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저출산(low birthrate), TV 드라마(TV dramas),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 1. 서론

가족은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연합으로 개인에게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세계에 그들의 독특한 역할을 수행해 낸다. 때로 가족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며, 개

인의 변화가 가족과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우리 사회와 가족의 이슈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은 그 원인이 사회구조적 문제이든 가족이나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었던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크

Corresponding Author: Gye-sook Yoo, Assistant Professor,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02-961-0257 Fax: 02-961-0352 E-mail: dongrazi@khu.ac.kr

\* 본 연구는 2006년도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의 문제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생산인구층의 감소로 사회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에 손실을 입은 것이 사실이며(김용익, 2005), 급속한 출산율의 저하는 기존의 인구구조 하에서 형성된 교육·의료·복지서비스·노동 및 산업체계 등의 부조화를 촉발시켜 사회 전체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노인부양비, 국민연금 등 사회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안명옥, 2004: 7-8).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자녀가 제공하는 물리적 심리적 혜택 요인, 자녀로 인해 부모에게 발생하는 직접 비용과 기회비용, 출산관련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제여건, 개인 라이프스타일, 양성평등적 사회규범 요인을 들 수 있다(Sleeboos, 2003, 장혜경, 이미정, 김경미, 김영란, 2004 재인용: 65-67). 전통적인 효의 개념이 약화되고 개인이 중시되면서 자녀들이 제공하는 혜택이 감소하고 오히려 부모의 부담이 증가하며, 실제 자녀를 키우며 드는 비용과 양육·취업간의 기회비용의 증가는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제상황이나 커리어 전망과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양성평등이 낮은 남성 중심적 사회규범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지나친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기대로 인해 부부는 다자녀보다 외동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최근에 나타난 둘째 이상 자녀출산의 급격한 감소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특정 사회에서 자녀관 및 결혼관 등 가치관의 변화를 단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은 대중매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텔레비전은 우리 사회와 문화가 공유하는 지배적 가치체계를 내재하고 포용하는 일상적인 대중매체로서, 시청자에게 던지는 문화적 의미는 다른 어느 매체보다 크다(장하경, 1998). 또한, TV 드라마는 결혼이나 가족 관련 이미지를 대량 생산하여 제공하는 주요 수단으로, 드라마가 담고 있는 내용은 현 사회의 환경, 가족,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대체의 기능을 통하여 사회의 가치관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TV 드라마에 나타나는 자녀관, 결혼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드라마에서 저출산 원인들로 지적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연도별 드라마 분석을 통해 저출산 원인의 시대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방영되었던 가족 드라마 중 자녀출산 및 양육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대상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자녀출산 및 양육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에 나타남

등장인물의 가족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TV 드라마의 가족현상을 통해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한국의 출산율 현황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는 1.08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대체출산율(Replacement Total Fertility Rate)인 2.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본(1.29명), 프랑스(1.89명), 독일(1.34명), 영국(1.72명)등의 국가에 비해서도 최하위권이다(통계청, 2005: 19).

최저수준의 출산율 못지않게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속도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에는 합계출산율 6.0명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2.1명으로 감소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전형적인 소산소사의 후기균형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출산억제정책을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하였지만, 이미 20여년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이며, 출산율이 일정수준으로 회복될지라도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구구조적인 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측된다(이삼식, 2004).

### 2. 저출산의 원인

출산의 대부분이 합법적인 결혼에서 발생하는 한국사회에서 초혼연령의 상승은 가임(출산가능) 기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고령임신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불임 및 임신소모 증가 등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을 감소시킨다(이삼식, 2006).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2004년 27.5세로 1981년에 비해 4.3세, 1990년에 비해 2.7세 늘어났으며,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표 1 참고). 또한 주 출산연령인 20-29세의 출생아수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하고 반면, 30-34세의 출생아수는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2000년대에 이르러 첫자녀에 비해 둘

<표 1> 여성의 연도별 혼인건수 및 초혼연령

	1997	1998	1999	2000	2004
혼인건수(천 건)	365	377	399	334	311
여성초혼연령(세)	23.2	24.1	24.8	26.5	27.5

자료: 통계청(2005: 9),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

째 자녀의 출생이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현상과 비교해 볼 때, 초혼 연령의 상승은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을 감소시켜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혼남녀의 빠른 가치관의 변화는 출산을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혼남녀의 29.1%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며, 자녀가치관과 관련된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단지 54.5%에 그치고 있었다(김태현, 2005). 이러한 결과는 결혼을 통해 출산이 이루어지는 한국사회에서 출산을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은 대체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cker 1965; Schultz, 1974, 장지연, 부가청, 2003 재인용). 즉, 제한된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속에서 여성은 임금노동과 출산·양육간에 선택을 하게 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개인성취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우리나라보다 높는데, 특히 가사·육아 부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출산력이 높게 나타난다(김홍미리, 2005: 64).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저출산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남녀차별적인 제도과 규범이 저출산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여성에 편중되어 있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남녀의 성역할 분리가 저출산의 주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대, 낮은 임금 등은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조성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28세 이상 미혼남녀 46.3%는 결혼을 원하고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김승권, 2003), 이들에게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여 결혼과 출산의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드라마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8년간 지상파 3개 방송사(KBS2, MBC, SBS)에서 방영되었던 가족 드라마 중 자녀출산 및 양육을 소재로 한 드라마 11편을 유목적 표집하여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1997년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주요원인이 되는 경제위기에 직면하였으며 1996년 종래의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하고 '신인구 정책'

으로 전환한 이후 인구의 자질향상 및 보건복지를 확대하였던 시기로(안명옥, 2004: 13-14), 저출산 현상에 의미있는 시기로 판단되어 이를 기준으로 연구목적에 적합한 드라마를 선정하였다. 다만, 3사의 가족 드라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화드라마와 수목드라마 및 주말드라마는 저작권의 문제로 대본 입수와 VOD(Video on Demand) 시청이 불가능하였으며, 방대한 양으로 인하여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자료분석에서 제외하고, 입수가 가능한 단막극을 중심으로 각 연도별 안배를 고려하여 분석대상 드라마를 선정하였다. 그럼에도 1998년과 1999년에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드라마를 선정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자녀출산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사회적 현상이 매스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분석대상 표집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3사에서 방영되었던 단막극을 중심으로 각 방송사 홈페이지의 VOD 서비스와 비디오 시청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 선정된 드라마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표 2>와 같다.

#### 2) 자료분석 방법 및 신뢰도

이상에서 선정된 드라마는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자료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데 사용되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특정 주제가 등장하는 빈도나 백분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의 특성을 특정한 관점에 근거하여 재해석함으로써 메시지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이다(Abrahanson, 1983; Mason, 1990; 김영천, 1997, 천혜정, 2005 재인용).

드라마의 질적 내용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두 명의 코더가 각자 드라마를 시청하며 드라마의 줄거리를 상세히 파악하였으며, 이후 반복적인 시청을 통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일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장면들과 잠재적 주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장면의 대사들을 전사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자가 전사한 자료를 해체하고 범주화함으로써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코딩을 실시하여 수십 개의 범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특징적인 중심주제(theme)와 의미를 도출하였다. 각자의 코더가 중심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3회에 걸쳐 도출된 중심주제에 대하여 코더 내 일치도를 검증하였으며, 연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Denzin(1978, 테보라 K. 패짓, 2001 재인용: 169-194)이 제안한 관찰자 다원화(observer triangulation)를 적용하여 코더 간 일치도를 산출하였다(표 3 참고). 이후 두 명의 코더가 얻은 중심주제들을 통합 재조직하고, 가족체계론적 관점(유계숙, 성미애, 최연실, 2003: 265-309)과 1996년 이후 이후 한국 저출산 요

<표 2> 질적 내용분석 대상 드라마

1	<설날 특집극> 엄마의 전성시대	2005	SBS	2부작 120분
2	<특선 오픈 드라마>아빠 만들기	2005	SBS	48분
3	<MBC 베스트 극장> 달수 아들 과외하다	2004	MBC	66분
4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이즘마 되기는 싫어	2004	KBS	60분
5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원정출산	2003	KBS	60분
6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시험판아기	2002	KBS	57분
7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기러기 아빠	2001	KBS	52분
8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맞벌이 부부와 아기	2001	KBS	52분
9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아들낳기 대작전	2001	KBS	59분
10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삼대독자 아들낳기	2000	KBS	48분
11	<70분 드라마> 베이비블루스 태아일기, 육아일기	1997	SBS	2부작 140분

\* 1998년과 1999년은 자녀출산 및 양육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표 3> 코더 간 신뢰도

Case	Theme		N	Code		N	Kappa
	1	2		1	2		
1	경제적 부담	가족이기주의	6	경제적 부담	가족이기주의	7	.92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가족 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가족 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개인주의화	전통적 가족규범		개인주의화	전통적 가족규범		
2	전통적 가족규범	가족이기주의	6	전통적 가족규범	가족이기주의	4	.80
	자녀양육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미비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		자녀양육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미비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		
	경제적 부담	해결책					
3	경제적 부담	자녀교육열	2	경제적 부담	자녀교육열	3	.80
				가족이기주의			
4	개인주의화	전통적 가족규범	5	개인주의화	전통적 가족규범	4	.89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	외모지상주의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	외모지상주의		
	가족체계						
5	경제적 부담	전통적 가족규범	7	경제적 부담	전통적 가족규범	5	.83
	자녀 교육열	가족이기주의		자녀 교육열	가족이기주의		
	가족 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		가족 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6	가족 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	3	가족 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	4	.86
	전통적 가족규범			전통적 가족규범	가족이기주의		
	경제적 부담	자녀 교육열		경제적 부담	자녀 교육열		
7	가족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	7	가족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	6	.92
	전통적 가족규범	가족이기주의		전통적 가족규범	가족이기주의		
	개인주의화						
8	경제적 부담	전통적 가족규범	6	경제적 부담	전통적 가족규범	4	.80
	자녀양육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미비	가족 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자녀양육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미비	가족 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	개인주의화					
9	경제적 부담	가족이기주의	4	경제적 부담	가족이기주의	4	1.00
	가족 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전통적 가족규범		가족 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전통적 가족규범		
10	가족 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새로운 가족형태 출현	5	가족 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가족이기주의	4	.89
	전통적 가족규범	개인주의화		전통적 가족규범	개인주의화		
	가족이기주의						
11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가족 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7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가족 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6	.92
	경제적 부담	개인주의화		경제적 부담	개인주의화		
	전통적 가족규범	해결책		전통적 가족규범	해결책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						
Total			58			51	.88

인에 '사회·직장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최숙희와 김정우(2005: 31)의 연구와 '가치관 변화'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와 저출산 현상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이삼식(2006)의 연구 등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가족 맥락, 가치관 변화의 3가지 요인을 생성하였다.

#### IV. 드라마의 질적 내용분석 결과

##### 1. 드라마 등장인물의 가족특성

각 드라마의 주인공은 1편의 드라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을 한 부부였다. 10편의 드라마에서 가족은 핵가족의 형태로 살아가며, 그 외 1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3세대 가족이었다. 이들 부부는 Duvall(1985, 유계숙, 최성일, 안재희, 전영주, 장보현, 2005 재인용: 61-70)의 첫 자녀의 발달단계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자녀 출산기에서부터 자녀 청소년기까지 다양한 단계를 보였다. 주로 자녀 출산기에서는 부부 자신들의 사회적 성취와 개인적 생활시간의 향유를 이유로 자녀출산을 기피하고 있었으며, 자녀 영아기에서는 양육의 문제로 부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차차 이상 자녀 출산을 꺼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 청소년기 부부의 경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부부가 헌신적으로 투자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자녀양육의 부담은 출산을 기피하거나 축소하는 원인이 된다.

총 11편의 드라마에서 맞벌이 부부는 2편의 드라마에서만 나타났고, 미혼을 제외한 나머지 7편의 드라마에서 여성들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전업주부, 남성은 경제적 책임을 지는 구조기능주의에 기초한 전통적 부부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1편에서는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나 맞벌이의 여부나 여성이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와는 상관없이 총 11편의 드라마에서 나타난 부부관계는 출산과 피임, 양육의 문제가 여성에게 전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드라마에 나타난 저출산 원인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분류는 각 연구의 성격과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라 달리 분류되곤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은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요인은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증가, 그리고 양육비용의 부담이 포함되며, 간접적인 요인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과 자녀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가족해체현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장진경, 2005).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의 사회적 환경 요인과 가족 맥락적 요인,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해 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

<표 4> 드라마의 등장인물 분석

구분	드라마	부부관계	인물	사회·직장·가정·양육				
				연령	학력	직업	가족형태	가족생활주기
1	엄마의 전성시대	남편 아내	한종두 윤성희	35세 32세	대졸 대졸	무직 회사원	핵가족	자녀 출산기
2	아빠 만들기	미혼부 미혼모	정현우 서경주	20대중반	대졸 고졸	유통업 판매원	미혼	결혼전
3	달수아들과외하다	남편 아내	강달수 달수처	40대초반 30대후반	대졸 알수없음	은행원 주부	핵가족	자녀 청소년기
4	아줌마되기는싫어	남편 아내	김석찬 임종희	38세 32세	대졸 대졸	회사원 주부	핵가족	자녀 출산기
5	원정출산	남편 아내	이병수 최선자	36세 32세	대졸 알수없음	교사 주부	핵가족	자녀 영아기
6	시험관아기	남편 아내	유성식 박희연	36세 32세	대졸 알수없음	회사원 주부	핵가족	학령전 자녀 를 둔 가족
7	기러기 아빠	남편 아내	이남호 윤성희	44세 40세	대졸 알수없음	회사원 주부	핵가족	자녀 청소년기
8	맞벌이부부와아기	남편 아내	강동호 윤미애	33세 29세	대졸 대졸	회사원 교사	핵가족	자녀 영아기
9	아들낳기 대작전	남편 아내	이귀남 차윤미	30대중반 30대초반	대졸 알수없음	회사원 주부	핵가족	자녀 영아기
10	삼대독자아들낳기	남편 아내	서정수 윤미애	41세 37세	대졸 알수없음	회사원 주부	3세대 가족	학령전 자녀 를 둔 가족
11	베이비 블루스 태아일기, 육아일기	남편 아내	박광윤 김희주	30대중반 30대초반	대졸 대졸	회사원 회사원	핵가족	자녀 영아기

<표 5> 드라마의 줄거리와 저출산 원인

1	<설날 특집극> 엄마의 전성시대	아내 성희는 자신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출산을 지연하던 중 임신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하려고 한다.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
2	<특선 오픈 드라마> 아빠 만들기	집안의 반대로 이별하였으나, 임신사실을 알게 된 경주는 아이를 낳고 양육 문제로 힘겨워 한다.	양육 인프라 부족과 비용문제
3	<MBC 베스트극장> 달수 아들 과외하다	달수와 달수 처는 자녀의 사교육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아내는 파출부일까지 하게 된다.	사교육비
4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아줌마 되기는 싫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려고 아내는 아이 낳기를 거부한다.	가치관 변화
5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원정출산	미래 자녀의 교육과 군입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빛을 내서 미국으로 원정출산을 간다.	사교육비, 가치관 변화
6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시험관아기	불임으로 고통을 받는 부부가 시험관아기 시술함에도 시댁의 간섭과 혈연중심 가치관으로 부부는 고통을 받는다.	가족맥락적 원인, 가치관의 변화
7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기러기 아빠	아이들의 사교육비 문제로 고심을 하던 가족은, 부인과 아이들은 미국으로, 남편은 한국에 남아서 아이들 교육비를 보내주는 기러기 가족을 자청하였다.	사교육비, 가족맥락적 원인
8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맞벌이 부부와 아기	주인공 부부는 맞벌이 부부였음에도 자녀출산과 동시에 모든 양육의 책임을 아내에게만 돌린다.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
9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아들 낳기 대작전	아들을 낳길 원하는 시부모님 때문에 불법태아감별을 통해 인공유산을 감행하였고, 결국 부인은 불임판정을 받는다.	가족맥락적 원인
10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삼대독자 아들 낳기	삼대독자인 남편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댁에게 부부의 성관계까지도 간섭을 받으며, 시댁의 강요로 인공유산까지 하게 된다.	가족맥락적 원인
11	<70분 드라마> 베이비블루스 태아일기, 육아 일기	자녀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 두고 얼마 후 재취업을 하지만, 육아와 직장생활에 아내는 힘들어 한다. 그러나 남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직장일을 계속하게 된다.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

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드라마의 내용과 저출산의 원인을 요약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1) 사회적 환경 요인

① 경제적 부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장기적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대, 낮은 임금 등은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김승권, 2003). 경제적인 요인이 저출산 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총 11편의 드라마 중 7편(드라마 1,2,3,5,7,8,9)에서 언급되었으며, 특히 교육비와 생활비의 부담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2004년 현재 OECD국가 중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드라마 2)

아이의 용품을 산 후 지갑을 열어 보니 돈이 모자란다. 현우는 이리 저리 잔돈을 합해서 계산을 하고 나오지만, 앞일이 걱정이다.

#(드라마 3)

(주인공과 친구와의 대화)

친구: 자식 과외 때문에 2000만원씩이나 대출을 받겠다 고? 그러게 말이다. 내가 하다하다 안되서 찾아온거야.

고등학생 되니까 완전 전쟁이예요, 전쟁. 팡수는 과외를 5개씩이나 한단다.

아내: 미쳤어 정말 너 대체 애한테 얼마씩 쓰는 거야? 아내의 동생: 골치 아파. 경수 아빠 벌여오는 돈. 고스란히 애한테 돌아가. 비밀이다. 경수 아빠 알면 큰일 나.

#(드라마 5)

아휴, 요새 애들은 이정도 영어 한다니까요. 내가 애 영어 학원 2개 보내드라 등골이 흰 다니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일을 다 다니겠어요.

옛날에야 뒷바라지 안하고 해도 개천에서 용 나고 했지만, 요새 다르다고. 뒷바라지 안하면, 개천에서 미꾸라지 밖에 안 난다고. 애는 투자한 만큼 달라진다니까.

#(드라마 7)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서 걸려온 전화)

아내: 여보~ 돈 좀 보내줘요. 우리 은수 캠프를 보내야 해요.

남편: 또 돈 얘기야? 집 팔고, 차팔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미혼이었던 주인공이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

가 생기면서 주인공은 양육의 부담을 느끼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드라마 1).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12.2%까지 급증하였다가 정부의 실업대책에 힘입어 점차 감소하여 2002년 3.4%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중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실업자의 48%를 청년 실업자가 차지하는데(최바울, 2004), 이러한 청년들의 불안정한 상태는 결혼이나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가계빚을 내가며 고액과외를 시키고, 원정출산, 기러기 가족을 선택한 가족의 모습은(드라마 3,5,7)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자녀교육열

혈연의식이 강할수록 부모자녀관계는 소유적 관계가 되 쉽고 부모의 주관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자녀에게 강요하게 되며 부모가 성취하지 못한 소망을 자녀에게 기대하는 대리성취적 자녀교육목표를 설정하게 된다(조옥라, 1985, 정현숙, 유계숙, 어주경, 전해정, 박주희, 2003 재인용: 420). 우리 사회의 부모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자녀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벌위주의 거대한 사회구조에 적응시키는데 급급해왔다. 학교교육은 파행으로 치달고, 부모들은 사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을 위한 인성교육과 가정교육은 실종상태에 있다. 전문가들은 자녀교육문제의 대부분이 최고만 인정하는 사회분위기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부모의 기대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사회적 강박관념을 극복하고 가정교육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과열된 부모들의 교육열은 간접적으로 자녀출산을 고려하는 예비부부들에게 부모역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드라마 3)

요새는 아이들 노력도 노력이지만, 부모가 어떻게 밀어주는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요새 시대가 달라졌어. 남들은 영어캠프다, 족집게 과외다 팍팍 밀어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태평해?

달수부(父): 자식 과외 때문에 2000만원씩이나 대출을 받겠다고?

친구: 그러게 말이다. 내가 하다하다 안되서 찾아온거 아니냐. 고등학생되니까 완전 전쟁이예요. 전쟁. 야, 광수는 과외를 5개씩이나 한단다.

달수부: 뭐, 과외가 다섯 개씩이나? 그럼, 갠 학교는 언제 가고 잠은 언제 자냐?

친구: 내말이 그거라니까. 근데, 누구나 다 한다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냐? 보라. 국영수 기본에 사탐, 과탐, 언어영역, 내신 기본만 하면 그거라니까. 아휴, 사교육이거 민족병이야.

달수모: 아, 어떻게 그렇게 비싼 과외를 해요.

이 윗: 솔직히 자기가 이상한 엄마야, 누가 들으면 남의 자식 키우는 줄 알아.

#(드라마 5)

솔직히 저는 원정출산이 그렇게 위험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애 미래를 위해서 보험 하나 든다 생각하고 떠난거라고요. 전 누구보다도 제 자식을 잘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극성이라니. 옛날이야 뒷바라지 없어도 개천에서 용나고 다했지만, 요즘엔 달라 개천에선 미꾸라지밖에 안나온다고. 애는 투자하는 만큼 달라진단니까.

아내친구 1: 사실 나 애 나라 미국 갔다 왔어, 우리 애 앞날이 달린 일인데. 솔직히 요새 애들 유학 보내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든다고. 근대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 공립학교는 다 공짜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새 강남에서는 애 생일 선물로 미국시민권을 주는 게 유행이잖아. 아무래도 선진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성공할 기회도 많고 그러지 않겠어?

아내친구 2: 이제 그만 해라..우리 같은 서민층은 어디 꿈이라도 꾸겠니? 그렇게 하려면 몇 천이 깨진다고 하던데..  
아내친구 1: 몇 천이 문제이니? 애 장래가 달린 문제인데..

일단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그 애들은 선택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를 초청할 수도 있는 거구요. 그렇게 좋은 점이 많으니까 다들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드라마 7)

아내가 먼저 아이들 유학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찬성했습니다. 지독한 입시 지옥을 겪어야 하고, 과외는 좀 많이 받아야 합니까? 제 자식들에게만은 다른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희생인데 고생 좀 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

드라마 3,5,7에서 나타난 고액과외, 조기교육 및 유학은 한국사회에서 학벌주의, 대학의 서열화, 대학입시제도와 공교육간의 간극, 고교 선택권 제한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과 교육의 고비용 사회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부담은 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원인이 된다(이상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운선, 최은영, 황나미, 서문희, 박세경, 전광희, 김정석, 박수미, 윤홍식, 이성용, 이인재, 2005: 283-291).

③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자녀 양육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미비

사회가 성장을 거듭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성의 돌봄 노동은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가치가 노동시장의 '일'에 주어지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가치는 저평가된다(Land, 1999, 이재경, 조영미, 이은아, 유정미, 2005 재인용: 58).

더군다나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형태의 선택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 돌봄 수행의 주체는 지금까지 여성이었고 상대적으로 돌봄 노동의 예외자였던 남성에게 있어 돌봄 노동은 선택이 될 수 있었다. 결국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돌봄 노동의 공백이 생기게 하고, 이것은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하는 여성들에게 있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드라마 중 4편(1,2,8,11)에서 여성들이 출산, 양육과 사회활동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드라마 1)

저희 지금 아기 가질 형편 못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일해야 하고 그이도 직장 잡아야 하고..

앞으로 3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야. 이 타이밍에 임신. 그래..사망선고나 다들 게 없어. 정상 바로 앞에서 자폭하는 거랑 같단 말이야.

호시탐탐 여자라고 찍어낼 기회만 엿보는 사람들한테 나도 임신 했어요 하라고? 은 대리처럼 사표 던지고 당신하고 썩썩하고 놀아야겠냐고.

#(드라마 2)

친 구: 암튼 난 애 못 봐주니까 그런 줄 알아.  
주인공: 애 데리고 직장 구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너 잘 알잖아. 당장 널부터 백화점 출근이란 말이야

친 구: 그럼, 백화점 부근 유아방에 맡기면 되겠네.  
주인공: 애는 미쳤어. 백화점에 애 없는 걸로 했잖아. 그리고 유아방에서 신생아는 맡아주지도 않는데.

#(드라마 8)

부인: 애 키우는 일이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남편은 부산하기만 하지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구요.

남편: 저도 한다고 한겁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쁘고요, 밤에는 잠도 못자고요.. 집에 오면 아내는 잔소리만 하고요. 그런데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아이가 예쁘긴 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훈이 낳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도 잘 키울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이 꼴 좀 봐.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게나 하고. 휴일에는 피곤해서 애랑 놀아주지도 못했어. 아침마다 떨어지기 싫어하는 애 억지로 떼고 나올 때는 내 눈에도 피눈물이 나는 거 같아.

가사조정위원1: 젊은 여성들의 일과 성취를 위해서 왜 할머니들이 희생을 해야 하는 겁니까?

가사조정위원2: 물론 젊은 여성들이 어머니 세대를 노예처럼 생각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적절한 양육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직장가진 여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구박당이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결국에는 병이나 옮겨오고. 속상해 죽겠네.

#(드라마 11)

아내: 나 회사 관둘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봐.  
남편: 할머니 댁에서 잘 놀잖아.. 지은이 사람 좋아해서 여러 사람 만나고 노는 게 좋을거야.

시누이: 애는 더 안 낳을거야?  
아 내: 무슨 더 낳아요. 하나도 이리 맡기고 저리 맡기고 하는 처지에..

실제로 자녀 출산 후 영아를 둔 취업모들은 아이를 맡길

1)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첫째아 23.3%, 둘째아 39.9%였음(이상식, 정운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신인철, 도세록, 조숙경, 강주희, 2005:51).



곳이 없어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22.6%에 이르고 있으며<sup>1)</sup>, 영아의 단기 보육충족률은 60.4%로 유아 88.1%에 비해 현격히 낮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 특히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2) 가족 맥락적 요인

① 가족 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가족은 함께 생활하며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들의 집합 그 이상이다. 이 가족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결속하는 구성원들의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개인은 하나의 하위체계이며 둘 또는 그 이상의 집단들은 세대, 성, 연령 등에 따라 또 다른 하위체계를 이룬다. 각 하위체계들은 상호관계를 맺고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상호경계에 의해 한계가 설정되어 가족과 하위체계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호한다. 때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하위체계간 경계는 외부 체계들과의 접촉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제한적이어서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자율적일 수 있지만 역기능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반대로 산만한 경계는 모든 하위체계의 관계가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데, 이러한 밀착된 하위체계들은 서로 높은 상호지원을 제공해 주지만, 독립과 자율성은 부족하고 역기능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드라마에서 나타난 역기능적 가족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드라마 6,9,10에서 부모-성인자녀의 하위체계가 밀착되어 있어 부모가 성인자녀의 부부하위체계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부부하위체계는 균형을 잃게 되었다. 분석된 내용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균형을 잃은 부부하위체계는 자녀와 역기능적으로 밀착하여 자녀의 정서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송정아, 최규련, 2002: 184-190). 드라마 9와 10에서는 시어머니가 자녀 부부의 성관계에 관여하고, 딸을 가진 부부에게 인공유산 권유하는 등 가족하위체계들의 경계간 모호함을 알 수 있다.

#(드라마 9)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

시어머니: 애미다. 어서 집에 들어가봐라.

남 편: 아니, 엄마 왜요?

시어머니: 글썸, 오늘 낮 1시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합방을 해야 한단다.

남 편: 어떻게 회산데 집을 가요?

시어머니: 아 집에 급한 일 있다고 하고 얼른 들어가봐라.

....(중략) (잠시 후 집으로 걸려온 전화)

시어머니: 그래, 너희 합방은 잘 했느냐?

아 내: 네, 어머니..

시어머니: 그래 내 이제야 한시름 놓는다.

#(드라마 10)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자,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안 아들 하나 낳아주려고 내 몸 다 버려가면서 고생했는데 그 비참한 억울함 다 말로 할 수는 없었지만, 딸아이를 장래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섭섭해도 나보다 못하다. 난 우리 아들생각만 하면 불쌍해서 미치겠다. 그 녀석 죽어서 제삿밥 한 그릇 못 얻어먹을 거 생각하면 아주 불쌍해 죽겠어. 그 녀석을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러고도 내가 할 말이 있어? 남의 집 대를 끊어놓고?

아 내: 딸이라면 어쩔건데?

친정어머니: 아, 어찌긴. 손을 써야지.

한편, 남편의 불임으로 정자은행을 통해 시험관 시술을 한 드라마 6의 부부도 시댁의 부부 하위체계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결국 남편이 다른 여성을 통해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이들 부부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드라마 6)

(어느 날, 한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남편)

아내: 누구야?

남편: 어머니가 우리가 속궁합이 안맞아서 애가 안생긴 거라고..

아내: 그렇다고,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 그럼, 어머니 부탁인걸 어떻게 하니..

아내: 난 이 애 못키워.

남편: 여보, 우리 이리저 말자. 태우랑 현우랑 우리 네 식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또한, 드라마 7에서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아내와 두 자녀가 미국으로 떠나고 남편이 홀로 한국에 남게 되는데, 이러한 장기간의 별거는 부부 하위체계에 아버지-자녀 하위체계의 경계를 지나치게 경직시켜 가족원들이 서로 고립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자녀관이나 가족관을 심어줄 수 있다.

#(드라마 7)

이 사람은 제가 아들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돈 때

문인 것은 알았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집도 팔고, 차도 팔아가면서 모두 송금했는데, 사실 섭섭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애들한테 필요한 건 돈이지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에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이혼 조정기간 중 아버지가 가족모임 중)

아버지: 너희 엄마랑 아빠랑 생각을 해봤는데, 아빠는 우리 네 식구가 한국에서 다시 옛날처럼 살았으면 좋겠고, 엄마는 미국에서 살기를 원해. 너희 생각은 어떠니?

아 들: 아빠가 미국으로 오시면 안 돼요?

아버지: 어, 그래. 아빠는 미국에 갈 생각이 없어.

아 들: 그럼, 전 엄마랑 그냥 미국에 있을래요.

아버지: .. 그래....? 그럼 너는?

딸: 전 상관없어요. 엄마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전체 인생을 살거니까요.

②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농경 사회에서의 대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 시대가 도래했듯이, 최근 정보화·세계화의 흐름은 새로운 가족의 모습 출현에 영향을 미쳤다(양희승, 2005: 214-219).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인 합계출산율이 2002년 이후 계속해서 1.1대에 머무는 것은 전체 혼인율의 감소이기도 하지만<sup>2)</sup>, 동시에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DINK(Double Income No Kids)족 부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최근에 증가하는 미혼과 이혼의 결과, 독신으로 생활하는 싱글족과(양희승, 2005: 214-219),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비혼모도 증가하고 있다.

#(드라마 1)

내 인생에 애 같은 건 없어. 언니도 알잖아. 나 모든 면에서 언니처럼 되고 싶은 거... 언니네 같은 완벽한 DINK족 Double Income No Kids! 수입은 good, 아이는 no! 우리 부부의 모토였다고...

#(드라마 2)

현우: 결혼도 안하고 혼자 아이를 낳는 것이 쉽지 않았을텐데.. 왜 그랬어?

경주: 그래..사실 쉽지 않았어. 지우려고 병원까지 갔었

어.. 그런데, 수술침대에 누웠는데.. 자꾸 입덧이 나는 거야.. 아마 우리 보람이가 자신의 존재를 나한테 알리고 싶었나봐.. 못 지우고 나왔는데, 길에서 넘어 지려고 했어.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배를 내가 움켜지고 있더라..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 이제 내가 보호해야 할 상대가 있구나..나도 이제 더 이상 혼자 아니구나..

#(드라마 4)

남편: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야..결혼 한 여자가 애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내: 이렇게 바쁜 몸이 어떻게 애를 가져..

우리나라의 경우 핵가족 중 부부뿐만 구성된 가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sup>3)</sup>,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부중심의 결혼이 증가하고(드라마 1,4)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결혼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선택이 되는 것(드라마 2)을 볼 수 있었다.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출산을 고려하는 가임인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가치관의 변화

① 외모지상주의

90년대에 'X세대'라는 독특한 사회의 주류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30대의 부모가 된 현재 이들의 변화는 주목할만한데, 특히 여성들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들은 모성 못지않게 여성성을 강조하며, 직업관에서도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인정하지 않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부모가 된 X세대의 자녀관과 결혼관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 중 91.9%는 자녀양육만큼이나 사회적 성취도 중요하며, 아이에 대한 투자만큼이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 열심이라는 답도 8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머니투데이, 2006년 1월 15일). 또한 자신의 외모관리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이들은 과거에 자녀를 위해 희생하던 어머니의 모습과 달리 자신들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드라마 1)

있잖아, 은대리. 잘나가는 직장 여성 관리 하는 게 능력이나 외모만은 아니거든, 임신관리도 필수야. 아니, 다들 다이어트에는 목숨 걸고 하면서 왜들 임신에는 무관심한지 모르겠네. 그동안 수고했어, 잘가.

2)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1998년까지만 해도 약 40만 건을 유지하였으나 그 후 빠르게 감소하여 2002년 이후에는 약 30만 건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각 연도별 인구동태통계).

3) 핵가족 중 부부뿐만 구성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4.8%로 1980년의 6.4%와 1990년의 9.3%에 비해 8.4%p, 5.5%p 증가했음(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장).

#(드라마 4)

난 비록 결혼은 했지만, 난 싱글 때처럼 그렇게 살거야. CF주인공처럼 멋지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거다. 처녀들보다 더 멋있는 유부녀로 우뚝 설 테니까 너희들 긴장들 해.

남들 아줌마 소리 들을 때 보폭스 맞아가면서 끝까지 버티기로 했었잖아.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 둘 포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전 여자로 살고 싶었어요.

본 연구의 드라마 1과 4에서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드라마의 가치관 변화 양상은 시청자들의 가치관에 또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개인주의화

결혼이나 출산은 더 이상 당연한 인생과업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김홍미리, 2005: 65).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 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김태현, 2005) 미혼여성의 13%, 미혼남성의 29%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기혼 여성의 23.4% 만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자녀가 주는 만족보다는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녀를 적게 나오려 하고 개인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결혼과 자녀의 의미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드라마 1)

어머님, 저희는 사실 결혼 할 때 아이 낳지 말고 둘이 일하면서 살자고 약속했어요. 저희 인생설계는 아직 애는 없어요. 결혼했다고 무조건 아이 낳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저희 인생에 충실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

아이 딸리면 인생 구질구질해지잖아. 멀리 갈 것도 없어. 엄마를 봐. 엄마도 나 아니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나는 아무 데도 안 묶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살다 갈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애 기대하지마.

자네 덩크족으로 애 없이 살기로 한거 잘 한기라. 나도 자식만 없으면, 오늘날 내가 지각해서 부하직원 눈

치 보겠나.

내 인생에 애 같은 건 없어. 언니도 알잖아. 나 모든 면에서 언니처럼 되고 싶은 거. 언니네 같은 완벽한 DINK족 Double Income No Kids! 수입은 good, 아이는 no! 우리 부부의 모토였다고.

#(드라마 4)

친 구: 너 어제 전화했는데도 안받고 아침마다 헬스만 나오고, 너 아주 여왕인데? 아니지 아줌만가?

주인공: 어허, 말조심해. 아줌마라니? 난 아줌마이길 거부한 여자야. 뭐 내가 비록 지금 결혼은 했지만, 난 싱글 때처럼 그렇게 살거야. CF주인공처럼 멋있고 자유롭게!

친 구: 결혼한 여자가 어지간히 그렇게 살겠나.

주인공: 난 그렇게 살거라니까. 긴장들 해, 알았어?

임신? 나 안돼. 애 생기면 애 때문에 음썩달짝 못할텐데...

#(드라마 11)

결혼하더라도 애는 빨리 낳고 싶지 않단 말이야.

③ 전통적 가족규범

남성은 생계부양자의 역할, 여성은 가사전담자라는 이분법적 성별분업과 저출산 현상은 앞서 언급한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인프라 부족과 여성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나타난 자녀양육에 공백에서 그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그 외에도 Torr & Short(2004, 김홍미리, 2005 재인용: 64-65)에 의하면 가족 내에서도 가구 내 가사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가구에서 둘째 아이 출산율이 높으며, Künxler(2002, 김홍미리, 2005 재인용: 64-65)는 가사 및 육아 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출산력이 높게 나타남을 밝힌바 있다. 결국 전통적 가족규범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드라마에서는 출산, 육아, 가사는 여성의 역할로 분담되어 있었으며 이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와(드라마 11) 심지어 남성이 불임인 경우에도 여성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었다(드라마 6).

#(드라마 4)

남편: 좋은 게 좋은 거다 두니까 스트레스만 쌓이고..

처형: 비결하나 가르쳐줄까?

남편: 비결이요?

처형: 애를 하나 가지면 싹 해결돼.

남편: 얘가요?

처형: 처녀처럼 살고 싶다. 놀고 싶다? 애가 있어봐 정신없어요. 시키지 않아도 집에 꼭 붙어있지. 선녀와 나뭇꾼 얘기 알아? 애가 셋이면 선녀도 하늘나라에 못 간다잖아. 기왕이면 둘, 아니 내친김에 셋, 넷 쪽 낳아버려.

#(드라마 5)

남편: 둘 지난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임신이야? 그건 여자가 잘 알아서 조절을 해야지.

아내: 미안해. 당신 힘드네.

남편: 할 수 없지 뭐. 이왕 생긴 애 어떻게 하겠어, 낳아야지.

#(드라마 6)

(시험관시술 실패 후)

아내: 미안해.. 미안해.

남편: 그만 힘내.

아내: 힘들어 죽겠어.

남편: 아, 처음부터 한두 번에 성공할 꺼라 기대한 건 아니잖아. 다시하면 되잖아.

아내: 얼마나 고생했었는데 그동안 병원오가며 온갖 고생 다하고, 엉덩이가 퍼렇게 멍들도록 주사 맞고, 마음 졸이면서도 아기하나 갖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다 참아왔었어.

#(드라마 7)

남편: 그만해! 도대체 애들 과외다 학원이다, 하루 종일 끌고 다니더니 뭘 가르친거야?

아내: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공부 가지고 애들 들볶지 말라고 잔소리한 게 누군데?

#(드라마 11)

(혼전임신은) 어차피 내 책임이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아내: 아이에게 하루 종일 치이고, 잠 한번 푹자는거,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우아하게 커피도 마시고.

남편: 왜 그게 어려워?(남편의 무관심)

아내: 나 회사 관둘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봐.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하고, 자녀 역시 선택으로 변하는 모습은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변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미 1960년대부터 남아선호사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었으며(변화순, 백경희, 김현주, 2001: 122-125), 1990년대에는 남아 선호에 대한 의식은 남아에 대한 선호관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이 없어도 무관하다는 의견이 '꼭 있어야 한다'의 의견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조남훈, 1997: 198-202). 또한, 최근의 한 연구의 미혼 남녀가 제시하는 자녀가 있어야 하는 이유에서 집안의 대를 잇거나 노후 부양을 위한 응답률이 매우 낮은 것에서도(김태현, 2005), 남아선호사상은 약화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을 통해서 볼 때, 관념적으로는 아들/딸 관계없지만 실제로 자녀를 출산할 때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과 행동의 이중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변화순의 2인, 2001: 125).

본 연구에서 분석한 11편의 드라마에서 드라마 6, 9와 10은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혈연 중심 가치관이 저출산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드라마 9)

아들 낳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 보자. 아들하나만 낳으면 만사 오케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드라마 10)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무조건 아들을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아들이 필요 없다고 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들을 바라는 집이 어디 우리 집만 이겠습니까? 아들이 좋으니까 다들 아들을 고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있으면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딸들이야 시집가면,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는 건데. 저도 그 생각만 하면..

특히, 드라마 10에서 시댁과 부부의 남아선호에 대한 가치관은 불법성별감별을 통해 인공유산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몸은 아이를 낳는 도구로 전락하였고, 계속된 아들 출산의 실패는 부부와 시댁과의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하였다.

#(드라마 10)

정말이지 아들을 낳으려고 제가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어요. 심지어 해선 안 될 일 까지 했어요. 남자 아이가 아니라고 뱃속에 아이를 그냥 지운 것만 생각하면...

제가 무슨 임신하는 기계도 아닌데 허구한 날 임신, 유산, 아들 거기에만 매달려서, 그게 짐승이 할 짓이지 사

람이 할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며느리: 죄송해요. 저도 이번엔 아들일출 일았는데, 시어머니: 너하고 우리 집안은 인연이 아니었나보다. 친정어머니: 사부인, 말씀이 심하십니다. 애가 일부러 딸만 낳고 싶다고 낳은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우리 집의 대를 끊어놓게 할 순 없다.

④ 가족이기주의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대가족제도라는 집단생활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강한 유대가 있었고, 특히 부모자녀 간에는 헌신과 사랑, 보호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중심의 태도가 산업화를 통한 배금주의 및 개인주의와 맞물리면서 과정보다는 결과, 협동보다는 경쟁, 절제보다는 과시를 우선하는 가족이기주의라는 가치관을 형성 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이기주의의 단적인 예가 외자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이다. 이처럼 한 자녀에게만 다 걸기 식의 투자를 함으로써 차차 이상에 대한 투자 부담으로 인하여 자녀수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

#(드라마 5)

상관없어.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내 자식만 잘되면 되지.

욕심이라 해도 좋아. 내 자식 잘되게 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애 미래를 위해서라면 난 달려 빛을 내서라도 꼭 미국 갈꺼야.

3. 드라마에 제시된 저출산 대책

출산율의 저하는 경제적 문제,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 혹은 가족의 맥락적 요인과 관련된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의 문제를 당면한 유럽국가의 경우, 단일한 정책적 개입보다는 다양한 정책시도를 통해 출산력 감소 현상을 억제할 수 있었다. 즉, 단순히 출산 자체에만 초점을 둔 육아 및 출산휴직제, 출산지원금 등의 효과가 아닌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의 저출산 현상은 개인 지향적 사회제도 내 높은 성평등 수준과 가족 지향적 제도 내 지속적 성불평등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의 결과였는데, 이들은 남성지배적 출산결정권 등 가족형성과정에서 남녀간의 불평등현상 개선을 통해 가족 내 여성의 지위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고 (Cuijvers and Kalle, 2002, RAND, 2004 재인용: 3),

이러한 가족 내 성평등은 가족의 안정화와(Kunzler, 2002, RAND, 2004 재인용: 3) 노동 시장 등의 성평등적 환경개선을 통해 가족책임의 공감대 형성을 가능(Milivoja, 2002, RAND, 2004 재인용: 3)하게 했다. 즉, 스웨덴의 경우 생업가족모형(bread-winner family model)에서 맞벌이 가족모형(dual-earner family)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가정과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정책을 추진하였고, 이것이 스웨덴의 1980년대 후반 높은 출산율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드라마 11편에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문제는 빈번하게 언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드라마 11에서만 보이고 있다. 드라마 11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편과 아내가 공유하며, 남편이 아내의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 11)

혼자서 다 책임지려고 하지만. 애 아빠는 없나? 애 아빠는 출장 가도 되고, 애 엄마는 안 되라는 법 있어?

이러한 부부의 성평등적 가치관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분담이 저출산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드라마 8에서 전통적 성역할 분담 형태를 갖는 부부와 비교해 볼 때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8)

직장동료: 조금만 더 있어봐라. 마누라 뱃속으로 다시 집어넣고 싶을 거다. 더구나 너희는 맞벌이잖아? 낮에는 누가 볼껀데?

남편: 아이고,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두 분이나 계신데

직장동료: 글썄. 요즘 할머니들 손주 안봐주신다는데.

남편: 아이고. 그럼 또 다른 수가 생기겠지. 아빠가 그런 걱정을 왜해. 아빠는 돈만 벌어서 주면 되는거야.

아내: 정말 힘들어서 못살겠어요. 애 하나도 힘든데 둘 짜라니.

직장동료: 애 아빠는 뭐래?

아내: 말 안했어요. 말하면 또 뭐해요? 뭐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큰소리는 멍멍 치겠지만. 낳아봐요. 나만 죽어나는 거예요.

직장동료: 남자들, 애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안돼. 어찌 다 기적귀라도 알아주면 그걸로 생색이나 내고.

또한, 미혼부가 부모가 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 2에서도 남편의 가사 및 양육에의 참여가 출산과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방영된 가족드라마(단막극) 11편을 중심으로 질적인 내용분석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기존의 드라마 분석 연구가 특정 드라마를 선정하여 연역적인 방법으로 등장인물의 특성과 서시구조 등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귀납적 방법을 통해 사회적,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또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드라마는 총 11편으로 각 드라마는 자녀 출산기, 영아기, 청소년기의 가족발달단계를 보이고 있었다. 자녀 출산기의 가족은 주로 부부중심의 가치관의 변화와 부부의 출산결정에 시댁식구들이 관여하면서 출산을 기피하거나 인공유산에 강요당하고 있었으며, 자녀 영아기의 가족은 대체로 양육의 문제로 부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자녀 청소년기의 가족은 자녀교육열로 자녀에게 모든 가족성원이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저출산 현상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발달단계에 따른 수요도를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분석대상 드라마에 나타난 저출산 관련요인들을 시대적으로 구분해보면, 2000년 전후 방영된 드라마들은 자녀 출산 및 양육의 문제를 가계계승 및 남아선호 등 전통적인 가족의 규범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0년 초반 이후 방영된 드라마들은 자녀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의 부담과 의무(예: 기러기 아빠, 원정출산, 사교육비 등)에 초점을 둬으로써 출산 및 양육의 주체가 가족에서 부모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2000년 중반 이후 방영된 드라마에서는 자녀출산을 결혼과 별개의 문제로 고려하거나(예: 미혼모), 자아 실현이나 자기만족을 위한 자발적 무자녀 선택(예: 개인주의적 사회, DINK족, 전문직 취업여성, 외모지상주의) 등 전통적 규범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개인주의화가 현저하게 반영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장혜경, 2004).

셋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석 대상 드라마의 방영연도를 안배하여 표집을 하였으나, 1997년

IMF 이후 1998년과 1999년에 방영된 드라마는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인하여 자녀출산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사회적 현상이 매스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사회 현상이 매스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매스컴이 사회 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이와오 수미코, 2004: 35-36).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드라마에 나타난 이슈뿐만 아니라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자녀출산 및 양육의 긍정적 측면 및 해결책보다 부정적 측면이나 문제만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넷째, 우리 사회는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드라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개인에게 결혼은 일생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며, 결혼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출산 및 자녀양육, 가사부담, 노부모 부양 등의 문제는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미혼의 기회비용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만혼이나 독신을 선택하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나, 앞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드라마 사례와 같이 그간 여성들이 전담해왔던 돌봄 노동에 남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정 내 성평등은 선진국 사례에서 입증되었듯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동아일보, 2005년 7월 5일).

다섯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부보다는 자녀중심 가족인 사회로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교육열이 너무 높아 자녀양육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는 등 희생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고(예: 기러기 아빠), 이러한 희생을 기피하는 결과로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다(박세경, 2006). 젊은 세대의 노부모 부양 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한편, 부모세대 역시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 투자를 재고하고 국가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부모-자녀관계가 재설정됨(예: DINK족, 노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기피 등)으로써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섯째, 가족맥락적 측면에서 부부 하위체계가 공고하지 못하거나(예: 자녀출산에 대한 시어머니의 개입,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가족에서 소외된 기러기 아빠), 비전통적 가족형태(예: 미혼모, DINK족 등)의 등장 역시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자녀관을 제시하거나 정상가족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V 드라마에서 다루어진 출산관련 이슈들은 시대에 따른 사회적 환경의 변화, 가족의 변화,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

며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던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적 내용분석 대상을 단막극으로 선정하였으나, 시청률이 일일극이나 주말극보다 높지 않다는 단막극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TV 드라마에 나타난 저출산 관련 주제들을 도출하였지만, 내용분석에 나타난 결과들은 현상을 기술할 뿐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양문희, 강형철, 2005).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작가 및 제작진을 대상으로 제작의도를 조사하거나, 분석대상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 심층면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반영한 드라마뿐만 아니라 자녀출산 및 양육의 긍정적 측면을 묘사하거나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드라마들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통한 출산드라이브 전략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승권(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86), 6-21.
- 김용익(2005).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 : 기초연설 ;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태현(2005).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02), 16-24.
- 김홍미리(2005). 저출산 고령화 정책 및 담론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및 담론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토론회. 한국여성민우회.
- 대니얼 라이프, 스티븐 레이시, 프레드릭 피코(배현석 역) (2001).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테보라 K.패짓(유태균 역)(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 동아일보(2005. 7. 5). 출산율 1.19 쇼크 <7>가족 안에서의 양성평등.
- 머니투데이(2006. 1.15). X세대 부모 “처가살이도 처세술이다”.
- 박세경(2006). 저출산시대의 자녀양육비 부담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11), 33-49.
- 변희순, 백경희, 김현주(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송정아, 최규련(2002).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안명옥(2004).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정정책과 실천방안. 대한가정학회 제 57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양문희, 강형철(2005). 텔레비전 드라마의 직장내 여성 관리자 및 경영자 묘사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49(5), 95-124.
- 양희승(2005).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핵가족의 재분열-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가족이 해체된다. 2010 대한민국 트렌드, LG 경제연구원, 214-219.
- 유계숙, 성미애, 최연실(2003). 가족학이론 -관점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유계숙, 최성일, 안재희, 전영주, 장보현(2005). 영화로 배우는 가족학. 서울: 신정출판.
- 이삼식(2004). 저출산시대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02), 7-15.
- 이삼식(2006). 저출산 원인과 구조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11), 5-17.
-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 황나미, 서문희, 박세경, 전광희, 김정석, 박수미, 윤홍식, 이성용, 이인재(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신인철, 도세록, 조숙경, 강주희(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와오 수미코(김영덕·이세영 역)(2004). TV 드라마의 메시지- 사회심리학적 분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인재(2005).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고용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5년 10월호, 22-40.
- 이재경, 조영미, 이은아, 유정미(2005). 저출산의 젠더분석과 정책대안 연구.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장지연, 부가청(2003).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여성연구 제65호, 1-31.
- 장진경(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 165-183.
- 장하경(1998). 대중문화에 나타난 부부관계 분석: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153-170.
- 장혜경(2004).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의 대응전략. 2004년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 여성정책포럼 2004년 제 7호, 33-40.
- 장혜경, 이미정, 김경미, 김영란(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정현숙, 유계숙, 어주경, 전혜정, 박주희(2003). 부모학. 서울:  
도서출판 신정.  
조남훈(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천혜정(2005). 여대생의 체험을 통해 본 이성교제의 의미. 가  
족과 문화, 17(3), 19-48.  
최바울(2004). 청년실업, 해결책은 있는가.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2004년 1월호, 101-107.  
최숙희, 김정우(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삼성경제 연구소 Issue Paper.  
통계청(2005).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  
통계청 홈페이지 출산력 추이.  
통계청 홈페이지, 한국의 사회지표, 2장, 가구와 가족.  
RAND(2004). 유럽 국가들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프랑스,  
독일,스페인 및 스웨덴을 중심으로-.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요약. 대통령자문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년 6월.  

---

(2006년 5월 3일 접수, 2006년 7월 17일 채택)